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삼상8:1-9)

서론: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족함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삼상8:5).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계속된 것이었습니다(삼상8:8).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 방식과 세상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롬1:28).

1.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결과

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면 자녀에게 고통이 임함을 깨닫게 하소서(삼상8:11-13).

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됨(삼상8:14).

-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숨은 경제의 문, 렘넌트 경제의 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심(삼상8:18).

-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가문,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안 보이는 적 사탄을 이길 수 없음.

- 세상의 어떤 왕도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 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2.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

가. 강적 중의 강적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린 참된 왕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히2:14, 요일3:8).

-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해방 - 엡2:2-5, 골2:13 / 권세 - 막3:13-15, 막16:17, 눅10:19).

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치유와 기적,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왕권을 가진 자로 흑암을 꺾고, 흑암에 묶인 자들을 빼내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16:16-19, 마28:18-20, 막16:15, 행1:8).

결론: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매일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누구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